

“영화로 민주·인권 가치 다음세대에 공유됐으면”

박기복 감독 단편 ‘밥’, 프랑스영화제 최우수 실험영화상

한강 ‘소년이 온다’ 오마주…5·18 몸짓·이미지로 재해석

“영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에 널리 공유되길 바랍니다.”

최근 단편영화 ‘밥’이 프랑스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실험영화상을 수상한 가운데 작품을 연출한 박기복 감독은 13일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광주 출신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그는 앞서 장편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과 ‘낙화잔향’ 등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지역의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제작사 무당벌레필름의 단편영화 ‘밥’은 프랑스 ‘시네마 로얄: 파리 에디션’(Cinema Royale :

Paris Edition)에서 ‘최우수 실험영화상’(Best Experimental Film)을 받았다. ‘시네마 로얄 : 파리 에디션’은 독립영화 창작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영화제다. 온라인 상영 방식으로 진행되며 장편·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아우른다.

작품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오마주했다. 전통 국악의 구음을 영화음악으로 활용하고, 대사 없이 몸짓과 이미지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실험적 연출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해



단편영화 ‘밥’ 스틸 컷.

석했다.

작품은 국가폭력으로 훼손된 인간성과 기억의 상처를 다룬 원작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동시에 그 상처를 넘어 사람들이 왜 새로운 세상과 평등을 갈망하게 되는지를 보다 직접적인 시선



지에서 찾고자 한다.

이번 작품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자산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2025~2026년 연속 지원을 받았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교육청의 ‘영화로 담은 작은학교’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

으로 탐구한다.

특히 소설 속 인물 ‘동호’를 상징적으로 현실에 불러내는 설정을 통해 인간이 왜 죽음과 두려움을 넘어서는지 질문을 던진다. 영화는 그 해답을 생존과 평등의 가

웠다.

주요 촬영은 화순 이양 쟁봉사, 광주 구 적십자 병원, 희경루, 총장로5가 등지에서 이뤄졌다. 전남예술고등학교 무용과 박소희, 연극과 윤성희·노건우·박서연 학생이 주연 배우로 참여해 몸의 언어와 섬세한 연기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표현했다.

‘밥’은 앞서 우크라이나 ‘맥스 시어 국제영화제’(Max Si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개막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프랑스 영화제 수상은 지역에서 제작된 실험영화가 국제 무대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확인한 성과로 평가된다.

박기복 감독은 “영화 ‘밥’과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가 광주와 전남 지역 상영관에서 학생과 시민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회는 최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찾아 배식봉사를 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회, 지역·나눔 실천

효령노인복지타운서 배식봉사…어르신과 소통도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회는 최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찾아 배식봉사를 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재수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회장을 비롯해 13명의 회원과 대표들이 참여했다. 특히 다수의 남성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배식과 식당 정리 등에 힘을 보태며 의미를 더했다.

정경남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은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셨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수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꾸준히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광주권역본부부는 지난 12일 소방학교 대강당에서 대시민 안전교육 역량 강화와 우수 강사 발굴을 위한 ‘2026년 의용소방대 자체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광주권역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 성료

최우수상 남부 양정연·김광미 대원, 광산 정복남 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광주권역본부부는 지난 12일 소방학교 대강당에서 대시민 안전교육 역량 강화와 우수 강사 발굴을 위한 ‘2026년 의용소방대 자체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강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안전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회에는 광주지역 5개 소방서를 대표하는 10개 팀 총 15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출전했다.

경연은 심폐소생술(CPR) 강의와 생활안전 강의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했다. 각 참여팀은 발표자료(PPT)와 동영상, 교육용 마네킹, 자동제세동기(AED) 등을 활용해 10분간 강의를 선보였다.

교안 및 현장 발표 심사 결과, 심폐소생술 분야에서는 남부소방서 양정연·김광미 대원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리셋버튼 자동심장충격기’를 주제로 강의해 최우수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장)을 차지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광산소방서 정복남 대원이 ‘한 줄의 기적 완강기’를 강의해 최우수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장)을 거머쥐었다.

1위를 차지한 최우수상 수상자들은 향후 열릴 ‘전국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 권역 대표로 출전한다.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4개 팀에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 수여됐다.

김희철 광주권역본부부 119대응과장은 “바쁜 생업 중에도 시민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준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담양 주민들과 맺은 인연에 감사”…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박대운 치우치과 광주두암점 대표

2년 연속 담양군에 100만원 전달

담양군은 13일 박대운 치우치과 광주두암점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담양군청을 직접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담양과의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대운 대표는 “담양에서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그 인연에 보답하고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담양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박대운 대표께 감사드린다”면서 “소중한 기부금이 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에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양군에 조성된 고향사랑기부금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병원 동행사업을 비롯해 청소년 영어·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아동·청소년 마음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 소상공인 야간경관 조성 등 주민 복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



박대운 치우치과 광주두암점 대표가 13일 오전 담양군청을 방문해 박종원 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농가주부모임 전남연합회, 어르신에 삼계탕 나눔

안부 확인부터 정신건강 살피기까지 돌봄활동 펼쳐

전남농협본부는 (사)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와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 전남지역 소외계층 140가구에 삼계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농심전심(農心天心), 여성(女心)이 함께’ 북날엔 건강을, 이웃엔 사랑을’ 사업의 일환으로, (사)NH도농상생운동본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각 시·군에서 홀몸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해 직접 방문하고 삼계탕을 전달했다.

특히 회원들은 삼계탕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는 등 안부를 확인했다. 또 정신건강 리플렛을 함께 배부하며 자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했다.

정혜숙 (사)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장은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께서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농가주부모임은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가까이에서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농협본부는 (사)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와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 전남지역 소외계층 140가구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광주교통공사, 금남로5가역에

‘공공생리대 자동지급기’ 설치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와 손잡고 도시철도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이 필요할 때 생리용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사는 오는 18일부터 도시철도 1호선 금남로5가역 화장실 입구에 ‘공공생리대 자동지급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무료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 청소년을 비롯해 일상생활 중 갑작스럽게 생리용품이 필요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장소에서 생리용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생리대 자동지급기는 연령이나 소득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객은 기기를 통해 중형 생리대 1팩(2매)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생리용품을 공급하고, 공사는 공공생리대 자동지급기의 유지·관리와 재고 점검 등 운영 전반을 맡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